

옥수수시세 하락에 비해 대두 및 대두박시세 계속 보합세 유지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지속적인 옥수수시세 하락

지난달 C&F 가격기준으로 톤당 100불 가까이 떨어졌던 미산 옥수수시세는 콘벨트 옥수수사정의 호조와 수출물량감소 등으로 인해 100불대가 깨어지면서 최근에는 C&F 90~95불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즉 7월21일 현재 미산 옥수수시세는 8월선적기준으로 PNW의 경우 C&F 불, Gulf의 경우 C&F 불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10월선적 및 11월선적의 원월도 시세는 C&F 90불수준은 밀돌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시세의 하락에 힘입어 태국산, 중공산,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시세 역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7월22일 현재 태국산 옥수수시세는 C&F 톤당 92불, 중공산 옥수수는 C&F 톤당 90불, 아르헨티나산 옥수수는 102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면서 미산 옥수수시세와 경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공 및 태국산 옥수수의 경우 실제 시장 가격은 미국산과 비슷한 C&F 90~92불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으나, 입찰시 오퍼가격은 이를 훨씬 하회하는 85불선에서 가격이 제시되고 있어 사료업체를 당혹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국산 및 중공산 옥수수의 낮은 오퍼가격은 일부 트레이더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 물량처분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신곡출하시 C&

F 톤당 85불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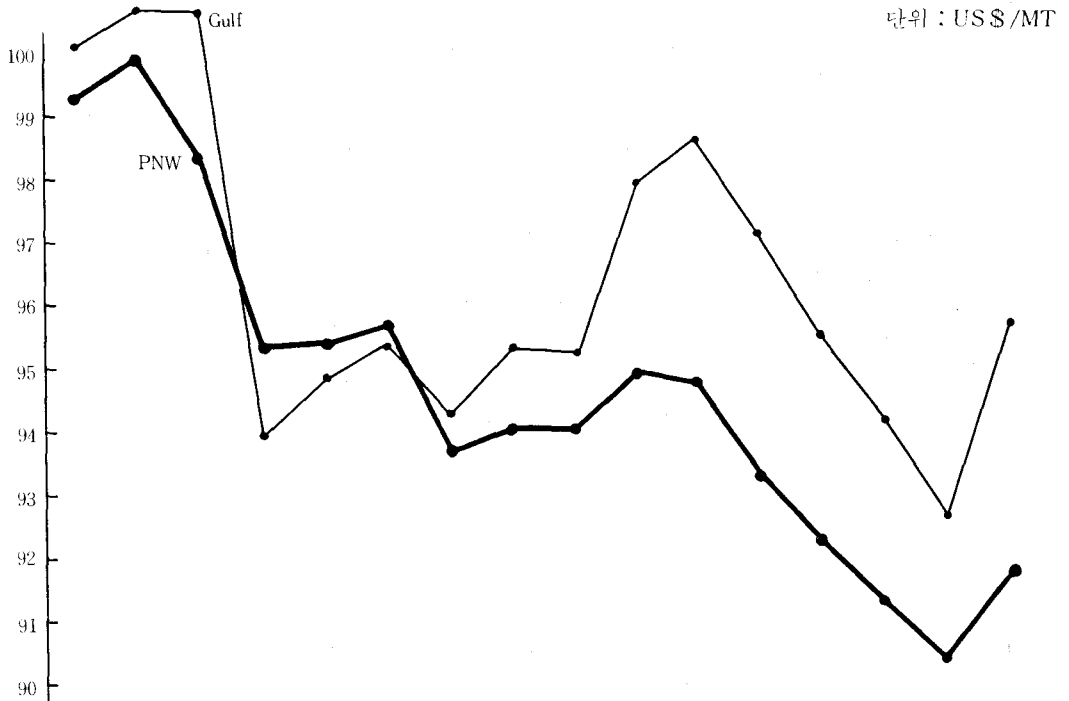
향후 미산 옥수수시세는 콘벨트의 작황호조와 수출수요감소 등으로 인해 낮은 시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태국산 옥수수의 경우, 한발피해와 자국내 사료공장의 선매 등으로 인해 강보합세가 예상되고 있다. 금년도 태국의 옥수수생산예상량은 480만톤으로 지난해 520만톤에 비해 9.6% 감소할 것으로 USDA는 전망하고 있다.

■ 미국의 옥수수상황 호조

지속적인 약세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옥수수사정을 살펴보면 금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불구하고, 재고누중과 수입수요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세가 예상되고 있다.

7월11일 미농무성이 발표한 미국산 옥수수 식부 예상면적은 약 7,670 만에이커로 전년도 실적치인 8,330 만에이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 3월에 예상했던 7,800 만에이커와 트레이더들이 예상했던 평균예상치인 7,800만에 이커보다도 훨씬 밀도는 실적으로 강세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실제 시세에는 반영되지 못한 채, 여전히 약세기조를 면치 못했다.

1. 옥수수 시세동향



단위 : US\$/MT

(7)월	1	2	3	7	8	9	10	11	14	15	16	17	18	21	22	23
PNW	100.22	100.91	99.43	96.38	96.48	96.68	94.71	95.01	95.01	95.99	95.89	94.32	93.14	92.25	91.46	92.74
Gulf	101.16	101.85	101.75	94.96	95.85	96.44	95.25	96.34	96.34	98.90	99.59	98.01	96.44	95.16	93.58	96.83

또한 금년도 수확예상면적 역시 옥수수의 경우 6,939만에이커로 지난해의 7,513만에이커에 비해 92.4%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내 옥수수 식부예상면적 및 수확예상면적에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수준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금년도 미국산 옥수수의 재고수준이 사상 유례없는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황상태가 대단히 양호하게 진전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전문용역기관인 레슬리에서 발표한 미국산 옥수수 수확전망에 따르면 7월 1일 현재 미국산 옥수수 작부상황은 병충해와 일기상태의 최상조건을 100으로 할 때 약 88.5%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 10년간 평균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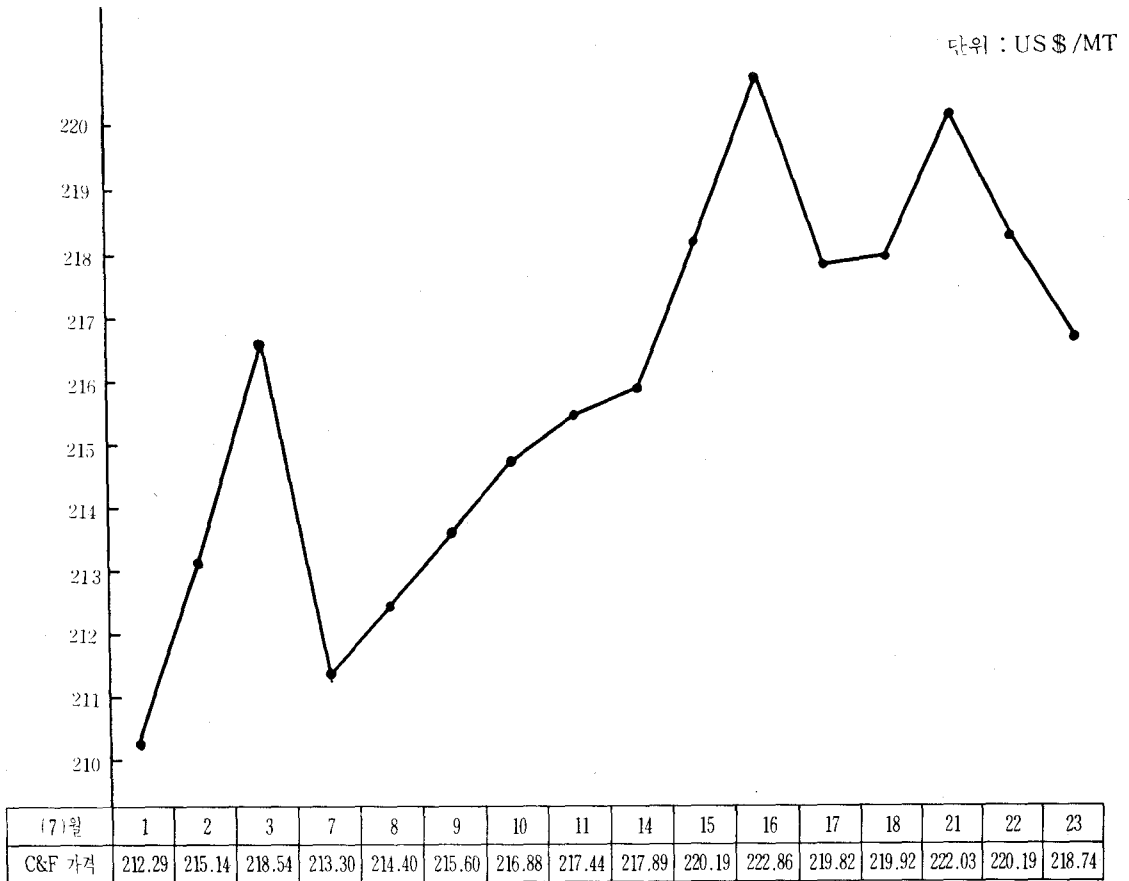
85.2%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이수치는 금년도 에이커당 평균 수확량이 과거 5년중 상위 4년 동안 평균치였던 에이커당 111.7부셀을 상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치이다.

또한 7월13일 발표된 미농무성의 옥수수 생육상황 역시 일부 조지아주와 노오스캐롤라나주를 제외하고는 전지역의 생육상황이 대단히 양호한 실정이다.

■ 대두시세 보험세 유지

옥수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료용 원료시세가 급락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대두 및 대두박시세는 장기적인 보험세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인 강세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 대두 시세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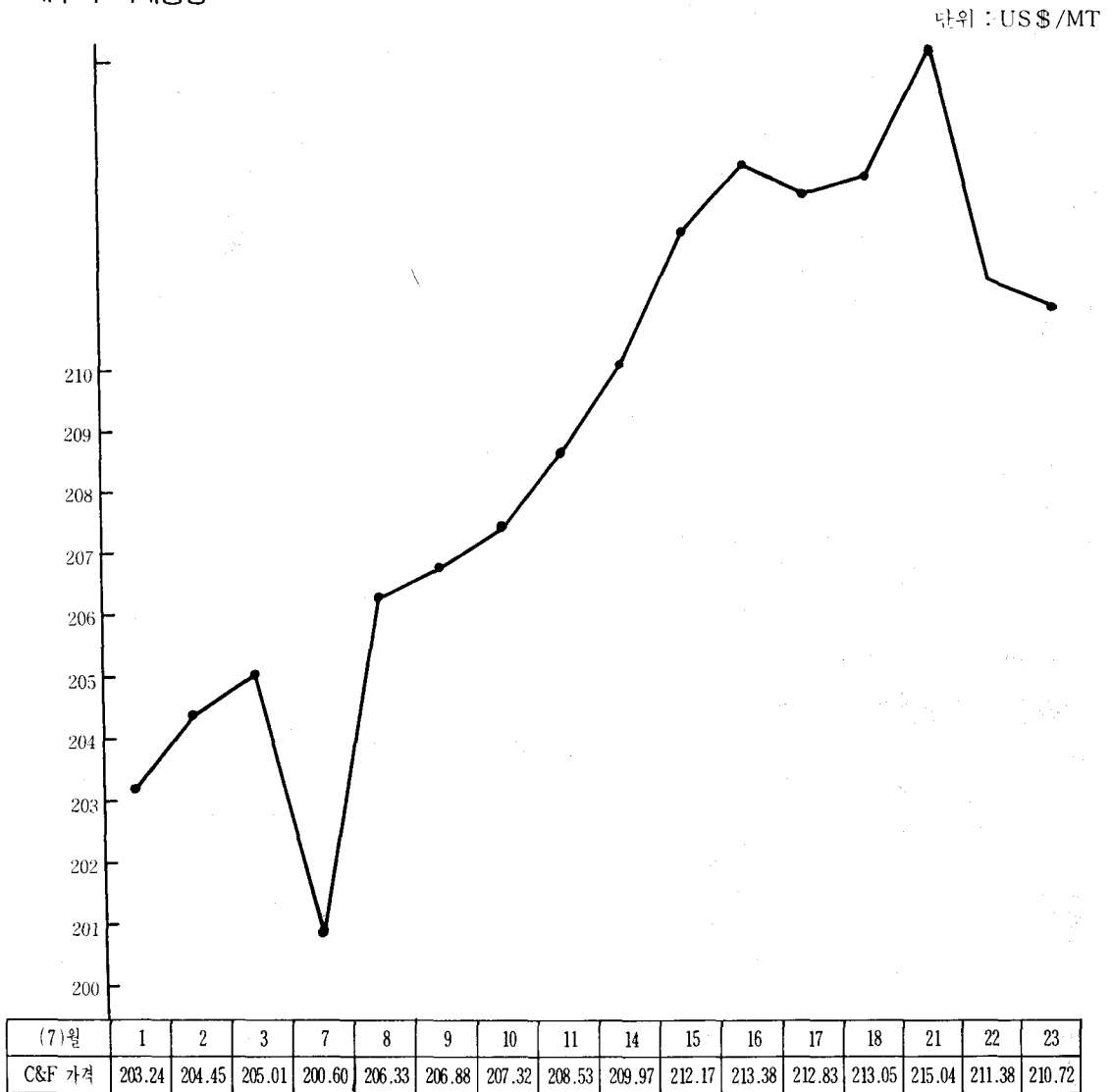
대두 및 대두박시세의 보합세현상은 지난 연말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타곡류와는 달리 수출 경쟁이 비교적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옥수수, 수수 등이 태국, 중공,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새로운 수출경쟁국들의 등장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심했던 반면, 대두의 경우 미국의 생산량은 크게 늘어났으나 미국의 가장 큰 수출경쟁대상국인 남미 브라질의 대두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출경쟁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85/86년도 미국의 대두생산량은 5,711만톤으로 84/85년도의 5,064만톤에 비해 12.8% 증가한 반면, 브라질의 경우는 85/86년도 1,300만톤을 생산하여 84/85년도의 1,820만톤에 비해 무려 29% 감소하였다.

결국 지난해 세계 전체 대두수급사정을 보면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말재고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2,212만톤까지 늘어났으나 가격은 비교적 강보합세에 머물렀다.

한편 금년 86/87년도 대두의 세계수급사정을 보면 공급측면에서 9,592만톤을 생산하여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생산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즉 미국은 86/87년도 5,171만톤을 생산하여 85/85년도의 5,711만톤에 비해 생산이 감소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지난해 생산량인 1,300만톤에 비해 26.9% 증가한 1,65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결국 금년도 세계 대두생산량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3. 대두박 시세동향



초재고의 큰 증가로 인해 전체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가격수준 역시 앞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해나갈 전망이다.

■ 기타곡물시세 급락

미산 옥수수시세와 기타국들의 옥수수시세 하락에 힘입어 기타곡물의 가격수준도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때 물량부족현상으로 인해 강세현상을 보여 오던 수수시세는 최근 수출수요의 감소와 아르헨티나의 수수출하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여 중공산과 아르헨티나산의 경우 C&F 가격기준으로 톤당 82~83불을 나타내고 있고, 미산 수수는 8월 이후 선적기준으로 82~85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수수시세는 미산 옥수수시세의 안정 및 기타곡물시세의 하락에 힘입어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수요증가로 인해 강세현상을 나타내던 사료용 소맥시세도 급락현상을 보여 호주산이 C&F 톤당 87불, 캐나다산이 80불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EC산은 다소 높은 85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소맥시세 역시 미산 옥수수, 사료용보리, 기타사료용 곡류시세의 하락에 힘

입어 약보합세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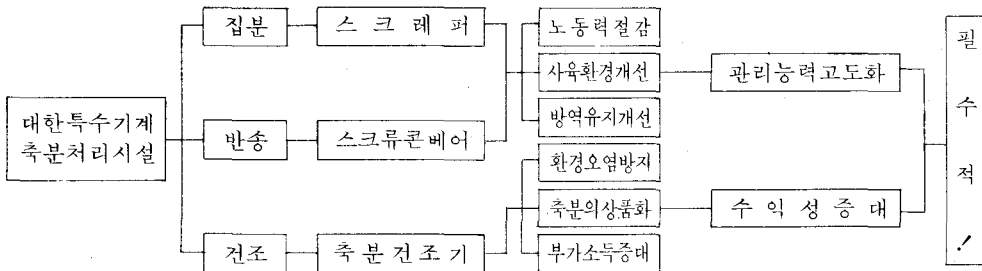
그밖에도 그동안 강세현상을 나타내던 호밀 역시 75불선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고 채종박, 해바라기박, 소맥피 등도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타곡물시세는 당분간 낮은 가격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해나갈 전망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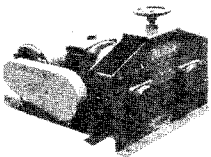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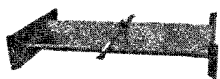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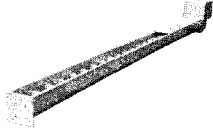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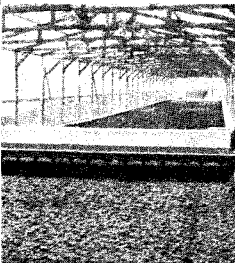
*철저한 방역으로 양계질병 예방하자

*각종질병 문의 ☎ (752) - 3571 ~ 2

축분처리시설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축산기계생산 전문업체



원 치	스크레퍼	스크류 콘베어	축분건조기
			



大韓特殊機械

대전시 동구 대화동 37 (대전제 2공단)
TEL. (042) 622-8111 (대)